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6. 하늘성소에 계시는 예수님

2013. 02. 1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2~16]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1. 지난 시간에는 요한이 계시를 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성경에 없는 사실을 왜 그렇게 교리가 되도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답: 지난 시간에 순교자 저스틴의 변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비쳤지요. 150년경에 쓴 그 변증서에 일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제팔일에 모인다고 썼다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증서가 나온 배경에는 유대인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130년경에 유대인 빨코크바, 혹은 코헤바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유대를 로마에서 독립시키겠다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했고, 유대인은 무조건 잡아넣었습니다. 유대인을 어떻게 분별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넣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아 잡혀들어 갔습니다. 억울하지요. 안식일 지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을 취급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요일에 기념 집회하던 것을 확장하여 안식일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러나 안식일을 폐한 것은 아니었지요. 이런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순교자 저스틴의 변증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팔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칠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을 빌린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기독교가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역사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날을 예배일로 결정하게 하고 지금까지 그 역사적 전통 위에서 성일이라 하고 주일이라 하면서 예배일로 지키고 있지요.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도 공부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이지요.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쩌면 일곱 교회에 대하여 공부할 때에 또 이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2. 그렇게 되었군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게 했군요.

답: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와 당부를 했습니다. 고전4:6과 요이9절을 읽어봅시다.

[고전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요이9]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 이 말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과 교훈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권고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제철일을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내쳐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성경에 예언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잘 연구하고 예언의 지도를 따를 때에 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왜곡시켜서 잘못된 사실을 믿게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24:24,25) 참으로 우리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유의하시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답: 요한의 뒤쪽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지를 알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 일곱 금 촛대가 있었고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한 분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어찌면 십자가를 지실 때 이왕에 타인보다 얼굴이 상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굳이 간직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16절까지 그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했는데, 여기 기록을 보면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모습이 서 있는 상태로 보이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것 같은 인상인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과 촛대 사이에 서 계시다는 기록을 어떻게 조화하지요?

답: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예수께서 언제나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니시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적 사건을 계시해주는 장면에서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고 히브리서는 계시해줍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대제사장 되

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하늘성소 봉사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곱 금 촛대는 바로 성소에 있는 기구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성소봉사를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는 은혜의 왕으로 즉위식을 한 사실과 그 위치가 성자의 보좌 위치라는 것을 계시해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3절과 5:30,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사실을 계시해줍니다. 한 번 읽지요.

[행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행5:30,31]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임금과 구주로서의 직위를 받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었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설명했고 다시 5장에서 오른손으로 높인 것이 임금과 구주를 삼은 것이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인데 즉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항상 앉아만 계시지는 않을 것이지요. 예수께서 활동하시다가 보좌에 앉으실 때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5. 예수께서 왜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예수께서 속죄를 위하여 행하실 봉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답: 아주 중요하고 쉽지 않은 질문을 하시네요. 아무튼 이 계시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한 성소가 예수께서 속죄봉사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구상화하여 지으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는 예수님의 구원의 봉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복음의 집약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깨달으려면 성소 봉사의 이치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는 크게 두 가지 봉사가 있지요. 하나는 성막 첫째 칸의 봉사인데, 첫 칸을 성소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떡 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둘째 칸을 지성소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매일 첫 칸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속죄일인 유대 종교력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속죄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먼저 성소 뜰에서 희생의 짐승을 죽이지요. 그리고 민족이 집단적으로 잘못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첫째 칸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휘장 앞에 일곱 번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린 집단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이제 하늘에 가셔서 성소와 지성소 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만 하시고 하늘에서 성소봉사를 하지 않으시면 속죄 사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선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확정됩니다.

6. 목사님, 그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구약의 성소봉사를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찬을 잡수실 때 잔에 대하여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26:28)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성소봉사에서 죄인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으로 속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를 번제단 아래 쏟은 후에 제사장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집단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이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나 속죄에 적용되려면 피 뿌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말씀을 봅시다.

[벧전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지요. 이같은 사실을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에게 죽은 사실을 호소하는 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말을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7. 그냥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고 했고 낮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답: 목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따지시는군요. 롬3:30과 8:33,34을 읽어봅시다.

[롬3: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롬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3:30절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를 말씀했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실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 뿌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절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기록된 계시는 성소봉사와 관련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성소 봉사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예수께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지요. 7:24,25입니다.

[히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갈리지 않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8. 예, 목사님, 아주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군요?

답: 그렇지요. 성소봉사를 하려면 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사람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8:4을 봅시다.

[히8: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께서는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은혜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를 믿는 각 사람에게 뿌리시는 봉사로 하나님께 속죄하도록 변호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때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계시록 1장에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계시적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외쳤지요.(행 7:55,56) 그것도 다니엘서에 예언된 70이레가 끝나고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때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것인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성소봉사를 시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작년 다니엘 공부할 때 70이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드린 사건입니다.

9.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개개인들을 개별적으로 속죄하시는 것입니까?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답: 아주 요긴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계시록 1장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20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지요. 다음에 할 이야기지만 지금 먼저 한 번 읽지요.

[계1: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성소봉사를 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한 봉사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인데, 교회를 형성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피 뿌리는 봉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한 경우는 교회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피 뿌리는 봉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피 뿌릴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이 다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인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지체가 몸을 떠나서 혼자 지체 노릇하겠다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이미 지체도 아니고 지체의 기능도 상실하고 죽게 되는 것이니까요.

10. 감사합니다. 결국 교회를 형성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피 뿌리는 속죄 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교회에 굳건히 속해 있어야 하겠네요.(당연하지요.) 그런데 여기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입니까?

답: 그렇지 않겠지요. 본문으로 읽었지만 다시 말씀을 읽고 살펴봅시다. 14~16절입니다.

[계1:14~16]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예수님 입에서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칼이 들랑날랑 하겠습니까? 또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은 다 상징적인 형상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실 때 실물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계시적 형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로 본 형상들을 많은 경우에 계시적 형상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니엘서 7장에 짐승들을 보여주신 사실을 말할 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묘사된 예수님의 형상도 계시적 형상입니다. 기록된 각 모습들은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흰 머리와 머리털이나, 불꽃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칼,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은 얼굴은 다 예수께서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행하시는 어떤 측면들을 표상하는 모습입니다. 모두 계시적 형상이지요. 다른 말로 상징적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를 기록한 장면을 읽을 때에 그것이 실제적 형상인지 계시적 형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오해를 할 수 있지요. 즉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1. 정말 그렇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그 계시적 상징적 형상의 복음적 의미는 다음 시간에 들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속죄의 희생으로 피 흘리시고, 승천하셔서 제사장으로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뿌리시면 속죄의 봉사를 지금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